

류 재 경  
 비전건축사사무소(인천), 2005인천건축문화축제 커미셔너  
 by Ryu Jae-kyong, KIRA

# ‘2005 인천건축문화축제’ 를 마치며...

## On Closing the 2005 Incheon Architectural Culture Festival

feature

‘2005인천건축문화축제’ 행사는 1999년 ‘건축문화의 해’를 모태로 하여 ‘인천건축도시주간’이라는 명칭으로 2003년까지 진행되었으나 아쉽게도 2004년도에는 대내외 혼란스러운 정치적, 경제적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04년 7월부터 인천도시건축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각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행사 재개를 적극 추진한 결과 인천광역시와 의회에서 민간위탁금 예산승인과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 보조금 지원 그리고 행사 협찬업체와 후원단체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찬금 등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전시는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준비과정과 행사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전국적인 건축문화운동이 본 궤도에 올랐으면 하는 기원을 담아 본다.

### 행사 준비 과정

행사준비과정을 크게 네가지로 정리하여 보면,

첫째로 2005년 3월 10일부터 인천건축사회 건축사 8인의 1차 예비모임에서 행사추진 방향과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하여 민·관·학 계에 추진위원을 선정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3월 29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추진위원은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8명과 인천의 5개

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실내건축과 교수 6명,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 소속 각 1명을 포함해 총20명으로 구성하였다.

둘째로 동년 4월 29일 1차 전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 커미셔너, 소위원회를 결정하고 행사명칭도 시민 참여 건축문화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2005인천건축문화축제'로 변경하였으며, 행사 주제는 인천 구도심권 '도시재생'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행사관리 역할을 세분하여 주최, 주관, 협찬, 후원 등으로 결정하고,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회와 인천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는 하면서 추진위에서 주관하여 각종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행사준비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세부추진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집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셋째로 동년 5월 30일에는 2차 전체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사업 계획 확정과 학생공모전, 도시건축사진 공모전 및 인천시민이 참여하는 건축백일장 행사를 결정하고, 학생공모전과 도시건축사진 공모전 포스터를 확정하여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했지만 본 행사의 막을 올렸다.

넷째로 공모전 이외의 본 전시 및 초대전시 부문, 외국건축가 초청 워크샵 등 행사에, 에너지절약 홍보전시, 근대건축물 탐방 버스 투어를 추가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각도의 세부시행 방안들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추진위에서는 시민과 함께하고 도시건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미래의 인천모습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많이 보여주었고 7개월간에 걸쳐 행사전반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으며, "행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평가 속에 모든 행사를 사고 없이 마치게 됨에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 행사 프로그램 구성

'2005인천건축문화축제' 행사의 사업계획 구성을 살펴보면 총5개 섹션(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전시부문은 「인천광역시 건축상 입상작 전시회, 인천건축사회 회원 특별전으로 「초대 전시부문은 교수·건축가 작품전, 지역대학 학생 우수작품전, 협찬 및 후원처의 외부초청 특별전으로 공모 전시부문은 「ASC전국학생건축 공모 입상작 전시회, 인천도시건축사진 공모 입상작 전시회, 건축백일장 작품전, 건축자재 전시부문은 「영림입업의 내장재 특별전,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절약제품 전시회, 이벤트 부문은 「유명건축가 초청 워크샵과 전시회, 근대건축물 탐방 버스투어」 등 다양한 행사계획으로 좀 더 시민에게 다가서는 건축문화운동이 되도록 하였다.

### 행사 로고 채택

추진위는 '2005인천건축문화축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 본인이 디자인한 로고를 행사에 적극 사용키로 하였다. 로고 의



2005 인천 건축 문화 축제  
Incheon Architectural Culture Festival  
2005인천건축문화제 로고

미는 먼저 바다에 연접 한 오랜 역사의 항구도시 인천광역시의 힘찬 비상을 뜻하는 '갈매기'로 새기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을 의미하기 위해 '연녹색의 바탕'이 채택되었다. 또

민·관·학계 대표들이 모인 추진위와 축제라는 의미의 '3인'을 표현함으로써 "이와 같은 조건이면 내고장 인천에 대하여 의욕적으로 사고하고 협력할 수 있으며,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건축분야도 문화축제가 될 수 있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행사 주제 선정

행사 주제어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의 선정 의미는 '도시재생'이란 말 그대로 도시를 다시 살려 보자는 의미이다. 건축은 분명히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세례를 받으며 변질되어 간다. 직접적인 시간, 물질의 약화, 부패 등은 건물의 내구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물체가 늙어져 간다는 퇴행적 가치밖에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런 반면, 그것과는 반대의 벡터(vector), 오래 됨에 동반하여 보다 명확해져가는 건축이 본질, 폐허화됨에 따라 증대해 가는 건축에 관련된 신화야말로 정보에 의해 토막난 공간과 시간을 연결하는 기술로서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축은 다시 한번 그 자신의 본래적인 시간을 삶으로서 개인을 초월한 무엇인가를 환기시키는 초월적인 힘을 되찾아야만 한다.

도시재생을 성공시킨 영국 건축가들이 말하는 재생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다. 이는 "미래에 개발할 여지를 남긴 채 천천히 개발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기존 도시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 도시기능을 활성화하려고 전면 재개발을 피하고 소규모의 점진적인 개발방식을 쓰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도시재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활과 경제와 문화가 어우러진 네곳의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또한 서로의 연계성을 가지며 공공이 우선 시작을 하며 점차적으로 민간주도의 사업으로 발전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인천광역시는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신도심의 건설과 동시에 침체되어 가는 기존 구도심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에 본 추진위에서도 큰 뜻을 동참하자는 의지 표현으로 행사 주제어로 결정하게 되었다.

### 인천광역시 건축상

인천광역시 조례 제73조에 의거 매년 실시되는 '인천광역시 건축상'은 인천지역내에 소재한 건축물로서 공고일 이전 3년 이내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포함)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전이 개최된다. 추진위에서는 인천광역시청 주택건축과의 협조하에 수상 및 출품작품을 연계한 전시회를 통해 일반시민과 인천성(仁川性)을 느껴보는 전시회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8월

29일 공고되어 응모한 18점에 대해 10월10일 각계의 저명한 심사위원들이 제출된 작품설명서와 패널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본 심사를 실시하였다.

공모대상은 아파트,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부문, 학교 청사 등 공공건축물 부문, 리노베이션을 포함한 일반건축물 부문으로 최우수상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을 설계한 이용선 건축사의 공공건축물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인천의 구도심에 학생을 위한 문화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에 촉매적 역할을 할 것이며, 입구 광장을 중심으로 각 기능의 원활한 연결은 매우 합리적이고 중앙부의 원형계단 부분과 좌우로 연결되는 동선 축은 천장을 통하여 들어오는 빛과 함께 독창적인 실내공간을 연출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최고의 '2005건축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주거분야 응모작 수가 적어 아쉬워들 하였으며 향후 구청장의 추천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우수건축물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지기도 하였다.

〈수상작 현황〉

구 분	수 상 내 역	수 상 자 명 단
인천광역시 2005건축상	최우수상	건축사 이용선 (인천학생 교육문화회관)
		건축사 박형배 (보건환경 연구원)
	우수상	건축사 김자호 (Bio-Manufacturing Facility Project)
		건축사 이총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진광고회)
		건축사 윤병완 (J Campus Re-Layout)
	장려상	건축사 이재규 (한중 문화관)
		건축사 조동욱 (여성의 광장)
		건축사 김철환 (인천보육원-푸른마을 아동센터)
		건축사 이주훈 (부평우림Lion's Valley)
		건축사 황용귀 (Kyungshin R&D Center)
		건축사 이종필 (옥련동 주택)

### 인천건축사회 회원전 등 초대 전시

지역건축 문화발전과 지역 건축사의 창의적인 건축 활동을 촉진하고자 계획작품이나 사용승인된 건축물, Image Drawing, 모형, 패널 등을 전시에 초대하고자 요청한 결과 '강화교육청 당선작', '마포중앙감리교회', '인천항만 교통정보센터', '동방중학교' 등 25점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었다. 설계교수·건축가 초대전에는 인하대학교 교수 내분을 비롯한 인천대, 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인하전문대에서 참여하여 16점의 패널과 4점의 모형 등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건축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본보기가 된 훌륭한 전시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소재 대학의 협조를 받아 예비건축사로 선발된 학생들의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계획패널 졸업작품이나 대학원생들의 테마기획물, 학교의 추천을 받은 재학생들의 과제물 등 전시된 80여점의 패널과 모형 그리고 영상물은 시민에게 건축의 의미를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개막식 후 전시장을 관람하신 내빈들은 인하전문대 테마기획전의 대형 모형을 가운데 두고 둘러 서서 창의력이 특출한 작품의 팀에게 아이디어

대가를 지불하고 도시계획에 직접 반영시키자는 중론에 큰 박수가 터진 일은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이었다.

외부 초청 특별전으로 기획된 주택공사의 논현2지구 1BL 아파트 단지 프로젝트 3가지 방안, 도시개발공사 Songdo Well County와 논현2지구 10단지 아파트 단지계획이 별도 코너로 전시되고, 포스코건설의 Mixed-use Residential Block 125, International School, Songdo Convention Center계획안들이 패널로 소개되었다.

건축자재 전시부문에 시범적으로 초청된 영림임업의 다양한 내장재 특별전은 방문객들의 큰 호감을 사 향후 좀 더 다양한 향토 건축 자재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겨났다.

찾아가는 에너지 홍보관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후원하에 전시장 전면광장에 마련된 특별전시도 단체관람이 이루어졌으며, 어린이도 이해하기 쉬운 홍보자료 덕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끌 수 있었다.

### 제2회 IASC 학생건축 공모전

IASC학생건축 공모전에서 '도시재생'은 그러한 도시전체의 변화가 아니고 기존도시를 해치지 않으면서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낙후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같이 흘러가며 도시에 적응하고 개발과 보존이 공생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진정한 건축은 시간이 지나도 그곳에 존재하며 그 도시를 살리고 그 도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

이러한 명제를 가지고 기존도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건축이 할 수 있는 도시재생 방법의 새로운 대안 제시를 기대하였다.

'현재'가 '과거의 미래'이며 '미래의 과거'라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러한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도시라는 무엇에 대해 해석 및 예측해 볼과 아울러 그러한 현대 도시상황에 있어서 건축디자인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생각해볼길 바란다는 주제 설명과 Key Word로 도시커뮤니티(Urban Community)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매개성(Intermediation)을 제시하였다.

학생건축공모전은 전국 16개 대학에서 43개 팀 98명이 방학을 이용해 인천을 탐방하고 작품으로 승화시킨 값진 노력의 보석들로 표현되었다. 10월 8일 1차 심사를 거쳐 28개 작품이 입상작으로 선정되었다. 10월 11일에 5분 동안 작품설명회를 거쳐 옥석이 가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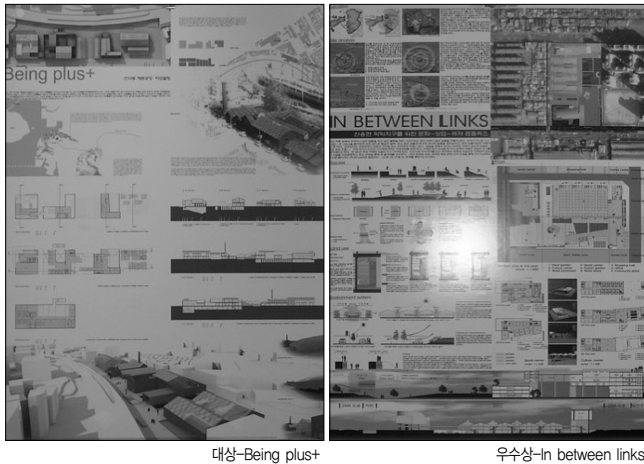
김윤겸과 정우석씨팀이 'Being plus+'란 작품으로 만석동 제분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건축물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도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존재하면서 도시의 기능에 충족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탐구한 내용으로 최고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한병열과 김민규씨 팀과 이윤호, 이민정, 신도현씨 팀, 오승현씨에게 돌아갔으며 또한 5팀이 가작을 차지했다. 이밖에 18개팀이 입선하는 등 이날 모두 28개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의 기준은 “어떻게 사이트(Site)를 찾아냈고, 어떻게 분석하여 이해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했는가”와 “공모주제에 대한 창의적 해석과 Solution에 있어서의 Human적인 면과 Community적인 면을 풀 어감에 대한 능력”을 보았으며, 특히 “보잘 것 없는 우리의 자산을 얼마만 큼 활성화 시켰나”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심사를 하였다고 한다.

‘도시재생’은 나홀로 건물이 아닌 주변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며 단순 한 대지분석이 아닌 도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고 지적하면서 아쉬운 점들은 전반적으로 현실적 치밀함들이 결여돼 있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치우치다 보니 공감대 형성이나 해결방안이 미흡하며 그리고 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헌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들이 눈에 띄어 아쉬움이 남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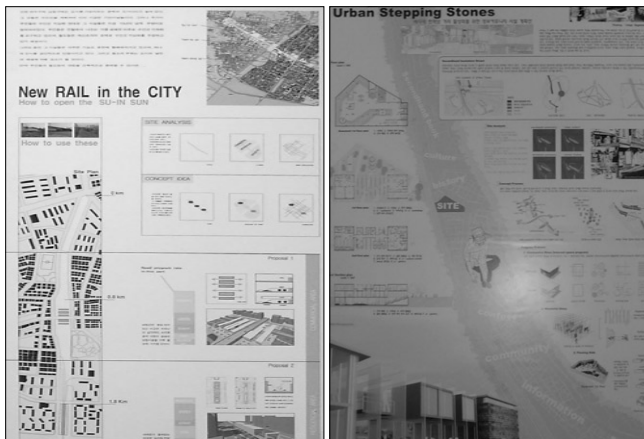
이슈(Issue)를 찾아내 분석하고 해석은 하였으나 건축화 하는 데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였으며, 작품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피드백(Feed Back)이나 리뷰(Review) 과정이 부족하여 각종 요소들을 건축적 디자인으로 승화시키는 데는 좀더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 있는 지적과 공모전에 참여하여 애정을 가지고 기존 도시에 대한 그늘진 곳까지 살피 연구 분석한 노고에 수상여부를 떠나 찬사를 보낸다는 평가로 가름되었다.

〈제2회 IASC학생건축 공모전 주요수상작〉



대상-Being plus+

우수상-In between links



우수상-New rail in the city

우수상-Urban stepping stones

### 제3회 인천도시건축사진 공모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는 큰 주제로 열린 이 공모전은 과거 2회에 거쳐 행한 ‘고(古)건축’과 ‘근대(近代)건축’이란 전통적 주제에 이어 이번에는 현재의 도시와 건축을 탐색하는 가운데 인천 고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인천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유연한 시각과 감각을 통해 일반시민과 인천성(仁川性)을 사진을 통해 느껴보는 공모전을 기대를 하였다.

인천도시건축사진 공모전은 전남 등 3개 도시에서 26명이 인천시내와 강화까지 돌아보며 67점의 작품사진을 앵글에 담아 제출하였다. 9월13일 심사를 거쳐 30점이 선정되고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발표되었다.

대상은 박은미씨의 ‘부개동 삼부아파트(야경)’로 호수공원에서 바라본 야경으로 환상적인 가로등의 불빛에 물들여진 아파트의 붉은 색조와 밤하늘의 구름이 우리가 평소 딱딱하게만 생각했던 건축물을 빛의 변화와 물에 비친 아름다움으로 빛어낸 수작이다. 우수상에는 류심희씨의 ‘고(古)한 옥’과 이충희씨의 ‘문학경기장 야경’이 선정되었다. 그 외 10점의 가작과 17점의 입선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작품위주의 샤프니스, 구조, 색조, 내용’이 심사기준이었다고 밝히며, 공모전 주제인 ‘인천의 건축물이나 도시공간과 빛’을 조화 있게 표현한 작품 발표로 인천건축물의 대외적 도시재생 차원에서 의미하는 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하였다.

〈제3회 인천도시건축사진 공모전 주요수상작〉



대상-부개동 삼부아파트(야경)

우수상-문학경기장(야경)



우수상-고(古)한옥

### 제7회 건축백일장 공모전

앞으로 동북아 중심의 관광·문화도시로 변모할 인천의 ‘생태주택(生態住宅)’이라는 주제로 막을 연 건축백일장은 2003년 ‘해변주택’ 주제에 이

어 금회에는 2020년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로 성장하는 인천광역시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네트워크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차세대 정보사회로 변화되는 신도시와는 반대로 자연속의 도시생활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미래 도시의 주역인 초등학교 및 그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건축 작품을 직접 구상하고 제작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이다.

화창한 날씨만큼 밝은 모습의 많은 참가 가족들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생태주택'이란 주제를 가지고 열린 토론회를 거쳐 아이디어를 모형으로 잘 표현해 주었다. 추진위가 준비한 재료와 본인들이 챙겨 온 각종 폐품이나 재활용품들을 적절히 조화시켜 미래의 생태도시와 공원, 건축물을 다양하게 형상화를 시도한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남구청의 특별 후원과 행사관리에 여념이 없던 건축과 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동료 공직자들마저 적극 호응하여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2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안전과 행사지원을 해 주신 일에도 큰 감사를 드린다.

1999년 '건축문화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초대 건축백일장 행사를 창안한 전진삼 건축비평가가 "전국 유일 가족 참여 건축모형 만들기 대회"라는 축하메시지에 참석자 모두 감격하며 열띤 환호를 보내 주기도 하였다.

건축백일장은 78팀 300여명의 친구나 가족들이 참여하여 3시간동안 나무그늘 속에서 구상했던 작품을 열심히 모형으로 만들어 최종 74팀이 작품 설명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한편의 드라마였으며, 수일이 지난 지금까지 여운이 남아 있는 최대의 행사였다고 추진위원들은 자랑하고 있다.

최고의 작품은 김다인의 3인의 친구와 가족 혼성팀이 만든 폐품 및 폐자재를 이용한 생태놀이 주택이 장원으로 뽑혔으며, 김선욱의 2인과 김한샘 외 3인이 차상으로 수상 기쁨을 누렸다. 이외 차하 4점, 가작 7점, 입선 14점이 상을 받고 전체 작품이 미추홀 전시홀에 전시되었다.

전체적으로 "자연을 모티브화하여 뼈대를 만들고 태양열, 물, 바람 등 미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미가 잘 표현된 작품도 많았다"는 심사평이 매겨졌다.



장원-생태 놀이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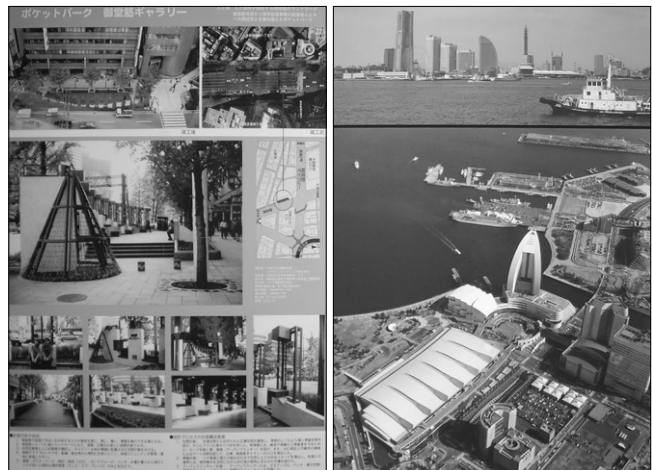
차상-미래 재해방지 주택



차상-한샘 옛터

## 외국건축가 초청 워크샵과 전시

워크샵은 2003년 대만의 건축가 Alexander Jen-Chien Moh의 'Urban matics'란 주제의 행사에 이어 금회에는 메인 주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프로젝트를 인천광역시에서 수행중인 외국 유명건축가를 통해 현재의 도시와 건축을 탐색하는 가운데 인천 고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추진되었다. 도시재생 전문가의 작품과 문제의식을 통해 인천을 생각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서 인천발전연구원 협조로 일본 관서학원대학교 교수의 '오사카 지역의 도시재생' 사례 발표와 NIKKEN SEKKE 설계회사 도마츠 건축가의 '동경지역의 도시재생' 및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 사례 발표 후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우리는 "도시디자인은 건축가의 의지와 아이디어가 기본이다"라는 점과 점차 "관주도에서 민간자본에 의한 타운개발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라는 견해에 참석자 모두 공감할 수 있었다.



## 행사 평가

10월 20일 폐막된 '2005인천 건축문화축제'를 통해 건축을 진정 사랑하여 찾아준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소감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남녀노소의 구분없이 찾아드는 건축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란 격려였다. 거듭 감사드

리며 건축과 도시환경을 한데 어우르는 '도시 비엔날레' 형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선진 도시재생 사례와 지역의 과제를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도시가 활성화된 개성있는 도시계획'을 목표로 우리 건축사들이 앞장 서야 할 것이며, 아름다운 그 도시만의 경관을 영원히 지켜가는 '건축문화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하겠다. ㉞

